

영광군, 코로나에도 '인허가 단축' 호응

1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심의' 도입 기준보다 민원처리 평균 3일 줄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허가 민원 업무가 지연되는 지자체가 많은 가운데 반대로 처리기간을 기존보다 대폭 단축시킨 지자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지자체는 영광군으로 관계부서가 비대면 온라인 심의를 통해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 민원 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로 시작된 대면업무 장애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월 '온라인 민원실무 심의회'를 도입했다.

'온라인 민원실무 심의회'는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최소 6개 이상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회의를 했던 기존 대면 방식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대폭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 행정전산망인 '새울행정 민원처리 시스템'에 민원이 올라오면 각 부서 담당공무원이 실시간 확인하고, 즉각 의견을 취합함으로써 업무절차



영광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되는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도입한 '온라인 민원실무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온라인 민원실무 심의회 사전 교육 모습. <영광군 제공>

간소화는 물론 민원처리기간까지 단축하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결과, 기존 대면방식 대비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3일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영광군은 빠른 민원 처리로 군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개발행위허

가 등 6개 복합민원 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무심의회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인허가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실무 심의회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해남군, 서울대·국가농림기상센터와 손잡고 미래농업 개척

기후변화 대응·농업역량 강화 협력

해남군이 객관적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 상황실에서 서울대학교·국가농림기상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서울대 이석하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김학진 교수, 김현석 국가농림기상센터장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해남군 농업발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와 대학, 연구소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대표 농군인 해남군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과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서울대와 농림기상을 연구하는 국가농림기상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농업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공모사업 유치 등에 큰 힘



명현관(가운데) 해남군수와 이석하(왼쪽)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김현석(오른쪽) 국가농림기상센터장은 지난 12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 제공>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의 시작점이자 경지면적 3만4000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있는 해남군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관문으로 미래농업 선도 등 농업분야의 대응전략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해 상

황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가 농업"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연구 진흥을 통해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모든 군민에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22일부터 영광사랑카드에 충전

영광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감염병 재난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어

려움에 처한 군민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1인 10만원의 지원금은 영광군이 전자(지역)화폐로 발행하는 '영광사랑카드'를 신청하면 2~3일 이내에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4월23일까지 진행한다.

'영광사랑카드'를 보유한 세대주는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곧바로 신청하면 된다.

영광사랑카드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는 수수료 2000원을 부담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영광=이준윤 기자 jylee@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 코로나19 극복 단체 헌혈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들이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지역을 위해 단체 헌혈에 나섰다.

헌혈은 지난 9~11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버스 4대로 진행됐으며 임직원 330명여가 참가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지난해부터 지역의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단체헌혈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단체헌혈에서는 250명여가 참가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봉사활동 등 회사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헌혈 참여자가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전병환 기자 jbh@kwangju.co.kr

목포동부새마을금고, 장학기금 1000만원 기탁

목포동부새마을금고는 최근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이사장 김종식 목포시장)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목포동부새마을금고는 앞서 지난 2013년, 2017년, 2018년에도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목포장학재단에 기탁했다.

김정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늘어나면서 학습여건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목포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농협 진도군지부, 제휴카드 수입 1900만원 진도군에 전달

NH농협 진도군지부는 최근 지난해 적절한 NH농협 제휴카드 기금 1900만원을 진도군에 전달했다.

제휴카드 기금은 진도군과 NH농협 진도군지부가 신용카드 이용 약정을 체결해 진도군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카드 사용액의 최대 1%를 적립해 조성하고 있다. 진도군은 이 기금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희식 농협 진도군지부장은 "농협은 앞으로도 진도군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자갈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